

金海 進禮 출토의 十二支像이 새겨진 石棺

金 英 夏*

차 례

- | | |
|-------------------|-----------------|
| I. 머리 말 | IV. 十二支像의 연구 개요 |
| II. 유적의 위치 | V. 몇가지 고찰 |
| III. 十二支像이 조각된 石棺 | VI. 맺 음 말 |

I. 머리 말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十二支像이 표면 하부에 양각된 石棺이 진열되어 있다. 이 유물은 金海郡 進禮面 松亭里 거주인 宋文復氏로부터 수집한 것이다. 필자가 경북대 박물관장으로 있을 당시 宋氏로부터 土器角坏를 구입한 적이 있었다. 그 때 宋氏가 송정리의 뒷산에서 석관을 가져다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석관의 4 벽에는 꽃같은 것이 그려져 있다고 해서, 가지고 오면 경북대 박물관에서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967년 4월경, 宋氏가 철도로 석관을 운송하여, 大邱驛을 거쳐 경북대 박물관까지 옮겨 왔다. 석관을 세척해 보니, 十二支像의 양각이 들어났다. 다시 宋氏가 경북대 박물관에 오면 석관의 출토지 등을 자세히 조사하려 하였다. 그러한 기회가 닿지 않고 해서 차일피일 석관의 보고를 미루어 왔다.

1987년 8월 21일 이후 몇차례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金海 松亭里 거주인 宋文復氏를 만나 석관의 출토지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¹⁾ 그래서 金海 進禮 출토의 석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十二支像 등에 대한 평소의 소견을 밝혀 보고자 한다.

II. 유적의 위치

金海市에서 進永邑으로 가는 도로를 따라가다가 남해고속국도의 진해인터체인지를 만나기 바로 앞쪽에 進禮面의 소재지인 청곡 마을이 있다. 행정 구역상의 松亭里는 청곡·송정·산월·상둔덕

* 慶北大 師範大 歷史科 教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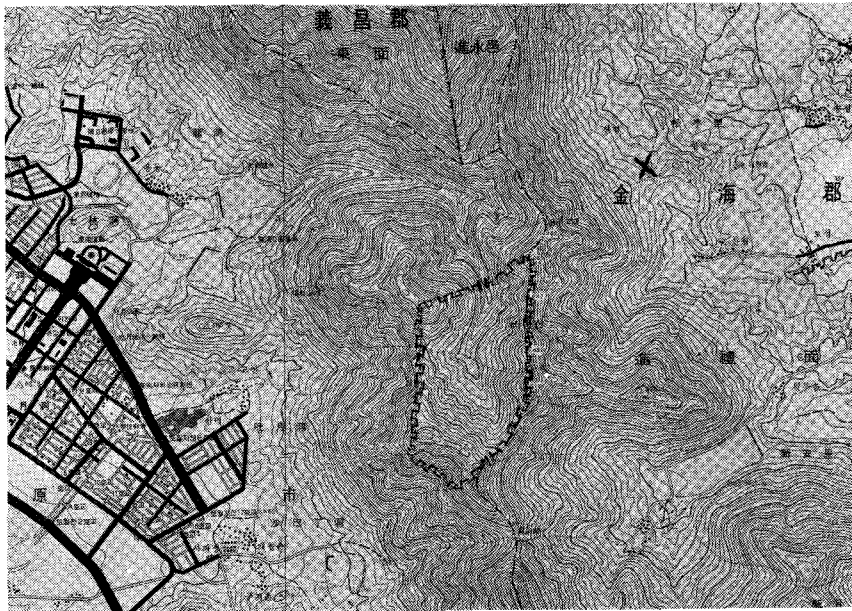
1) 宋文復(1937년 2월 10일생)씨는 현재 松亭里 521번지에 거주하고 있다.

하둔덕의 5개 자연 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송정 마을을 松亭里에서는 본송정이라고 불러 행정 구역상의 松亭里와 구별하고 있다.

松亭里에서 남쪽으로 조금 가면 토성 마을이 있고, 이 곳에 토성이 있다. 현재 토성의 흔적은 마을의 가운데에 〕字形으로 남아 있다. 비교적 잘 남아 있는 부분의 城壁은 너비 약 5m정도, 높이 0.5~1m정도이다. 대부분은 흔적만 남아 있다. 이 토성의 북서쪽에 인접하여 忠訓寺址가 있다고 하며, 토성 마을의 남쪽 구릉에는 小形古墳이 밀집해 있다.²⁾

송정리에서 서쪽으로 가면 進禮山城이 있다. 이 山城은 동벽만 昌原市와 金海郡의 경계선상에 있고, 나머지 성벽은 모두 昌原市 岾月洞에 위치하고 있다. 둘레가 약 4km정도되는 큰 石築山城으로서 긴 계곡의 주위를 에워싼 包谷式山城이며, 해발 450~500의 山頂上部를 따라 축조되어 있다. 성벽은 割石으로 쌓여져 있는데 현재 대부분이 무너져 그 원형을 많이 잃고 있다. 남문지와 북문지가 남아 있다.³⁾ 한골·산월·송정 마을의 중간 낮은 야산에는 소형석관묘(묘분)가 산재해 있다.⁴⁾

進禮城의 북쪽끝에서 송정리에 이르는 작은 길이 있다. 이 길의 도중에 한골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 미치지 못한 곳인, 進禮山城이 있는 산의 북동쪽 하단부 끝에서 석관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곳의 행정 구역상의 위치는 慶南 金海郡 進禮面 松亭里 山 70번지이다. 송정리 거주의 송세관씨 조상묘터의 서쪽에 해당된다.⁵⁾



(석관출토 부근지도)

×표시한 곳(석관 출토 지점)

- 2)釜山大學校 博物館, 1984《伽倻文化圈遺跡精密調査報告書》, 金海市·金海郡一, pp.121~122.
- 3)釜山大學校 博物館, 1984《앞의 책》, pp.128~129.
- 4) 1987년 9월 13일에 이재수·김창호·박보현 등이 확인하였다.
- 5) 宋文復씨는 현재 위 수술을 한 뒤라 현지 출토 지점의 안내가 불가능하였으나 출토 지번 등에 대해서는 지적을 통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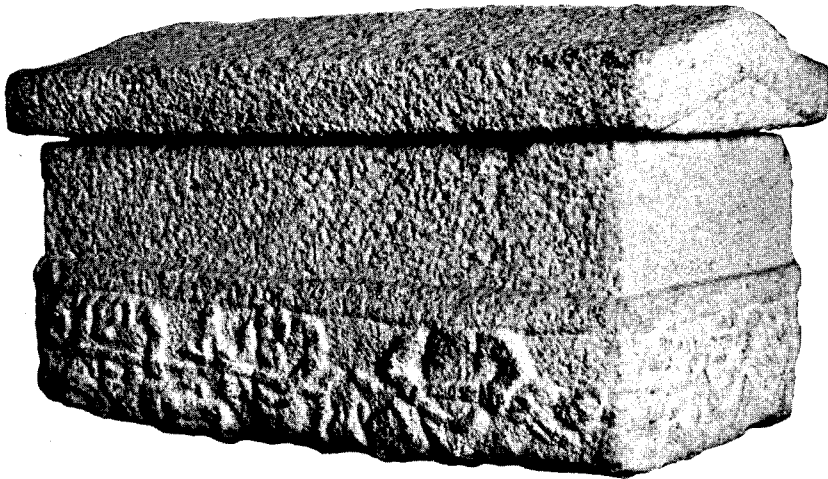
Ⅲ. 十二支像이 조각된 石棺

석관의 재료는 화강암이다. 전체의 모습(석관 사진과 실측도 참조)은 맞배집처럼 생겼다. 석관은 한 면이 깊게 파여진 긴 사면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몸체와 짧은 면의 단면이 5각형으로 된 개석으로 나누어진다.

몸체의 크기는 68.3cm×43cm×32cm(높이)이다. 내부에는 화장된 유골을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이 파혀 있다. 석관 내부의 공간은 단면 사다리꼴의 모습을 하고 있다. 위쪽은 51cm×26.6cm로 넓게, 아래쪽은 48cm×24.5cm로 좁게 되어 있으며, 길이는 18cm이다. 석관의 위쪽에는 개석이 덮힐 수 있도록 턱을 만들고 있다. 석관 외부의 하단에는 아래에서부터 높이 15cm쯤 되는 곳에 4면 모두에 2cm 정도의 돌대를 돌리고, 그 아래에 十二支像이 조각되어 있다. 석관 바닥의 밑부분은 정면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석관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十二支像이다. 十二支像은 각 면마다 3상씩 양각되어 있다. 긴면의 북쪽 중앙에는 子像, 다른 긴면의 중앙에는 午像, 단면의 동쪽 중앙에는 酉像, 다른 단면의 서쪽 중앙에는 卯像이 조각되어 있다. 그 사이사이에 丑·寅·辰·巳·未·申·戌·亥 등이 각각 十二支 배치의 순서에 따라 양각되어 있다.

각석은 맞배집의 지붕과 같은 외형을 하고 있는데, 장변의 길이는 72cm이고, 측면의 길이는 46cm이며, 측면 한 가운데의 높이는 12cm이다. 개석의 안쪽은 넓게 파 있는데, 정면의 단면을 보면 꺾쇠〔∩〕처럼 되어 석관에 덮혀서 개석이 옆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되어 있다. 이상으로 석관의 모습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마치고 이제 十二支像에 대해 조사해 보자. 十二支像은 4면에 각각 3상씩이 배치되어 있다. 각 면의 3상들은 모습에서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각 면별로 소개하기로 하겠다.



(석관의 사진)

동쪽면에는 중간에 卯像, 오른쪽에는 辰像, 왼쪽에는 寅像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卯像은 정면을 향해 발을 조금 넓게 벌리고 쪼구려 앉아서 몸의 重心이 오른발에 와 있게 하였다. 持物은 왼쪽을 높게 오른쪽을 낮게 하여, 오른손은 위에서 아래로, 왼손을 아래에서 위로 하여 지물을 잡고 있다. 얼굴은 정면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 아래웃은 짧은 것을 입고 있고, 위에는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쪽으로 넓은 띠를 두르고 있다.

寅像은 두 발을 조금 넓게 벌리고 앉아 있는데, 엉덩이를 많이 들고 있다. 몸의 중심은 왼발에 와 있다. 지물은 오른쪽을 높게, 왼쪽을 낮게 하여 왼손은 왼쪽 지물의 끝을 가슴 앞에서 손을 바깥에서 안으로 잡고 있고, 오른손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지물을 잡고 있다. 얼굴은 정면을 향해 있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고, 입을 벌리고 있다. 아래웃은 짧은 것을 입고 있고, 위 쪽은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로 넓은 띠만 두르고 있다. 卯像과 寅像에서 지물의 높은쪽 끝이 서로 맞닿아 있다.

辰像은 정면에서 오른쪽을 향해 쪼그리고 걷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오른발은 앞쪽에 있는데, 거의 지면에 닿아 있고, 왼발은 조금 뒤쪽에 있는데 곧 지면에서 떨어질 것 같이 발끝만 지면에 닿아 있다. 지물은 오른쪽은 앞에, 왼쪽을 몸보다 뒤에 수평으로 엇비슷하게 들고 있다. 지물을 잡는 손 가운데에서 왼손은 왼쪽 허리 부분에서 몸의 바깥에서 안으로 쥐고 있고, 오른손은 앞쪽 허리 부분에서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쥐고 있다. 얼굴은 오른쪽을 향해 있고, 입을 벌리고 혀를 밖으로 내밀고 있다. 짧은 아래웃만 입고, 위쪽은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로 굵은 띠를 두르고 있다.

서쪽면에는 가운데에 酉像, 오른쪽에는 戌像, 왼쪽에는 申像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戌像은 정면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오른발을 앞쪽에, 왼쪽은 뒤쪽에 두고서, 다리를 좀 많이 벌리고 왼발만 쪼그리고 몸의 자세를 낮추어 서 있다. 지물은 수평으로 해서 왼손만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잡고 있다. 위와 아래의 웃모습은 불분명하고,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로 넓은 띠를 두르고 있다.

酉像은 몸을 오른쪽으로 향해, 오른발을 앞으로 해 지면에 닿아 있고, 왼발은 뒤로 하여 지면에서 떨어져서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지물은 거의 수평으로 두고, 앞에 위치한 오른쪽이 조금 높고, 뒤에 위치한 왼쪽이 조금 낮게 되어 있다. 왼손과 오른손이 각각 왼쪽과 오른쪽의 가슴 앞에서 쥐고 있다. 짧은 아래웃만 입고 있으며,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로 넓은 띠를 두르고 있다.

申像은 몸을 오른쪽으로 향해, 오른발을 앞쪽에 두어 거의 세우고 있고, 왼발은 뒤쪽에서 무릎이 거의 지면에 닿도록 구부리고 있다. 지물은 오른쪽이 높게 왼쪽이 낮게, 40°쯤 세워서, 오른손이 조금 높은 곳을 안쪽에서 바깥으로 잡고 있고, 왼손은 조금 낮은 곳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잡고 있다. 아래와 위의 웃은 불분명하다.

남쪽면은 가운데에 午像, 오른쪽에 未像, 왼쪽에 巳像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午像은 몸의 전체가 정면을 향해 두 발을八字로 조금 넓게 벌리고 거의 엉덩이가 땅에 닿을 정도로 앉아 있다. 지물을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하여 오른쪽을 조금 높게 하여 들고 있다. 오른손은 몸의 바깥쪽에서 손의 방향을 밑에서 위쪽으로 잡고 있고, 왼손은 가슴의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조금 치우쳐서 손을 위에서 아래에 하여 잡고 있다. 짧은 아래웃만을 입고 있고, 허리에는 넓은 허리띠를 두르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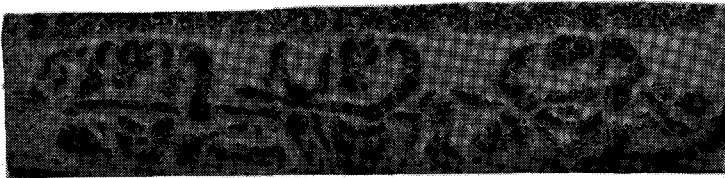
〈동 쪽 면〉



〈서 쪽 면〉



〈남 쪽 면〉



〈북 쪽 면〉

十二支像의 사진

는 듯하다.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쪽으로 넓은 띠를 두르고 있는데, 이 띠의 오른쪽 허리 부분에 帶鉤가 묘사되어 있다.

未像은 몸을 정면으로 향하여 오른발은 기역(7)자 모습으로 굽혀 세우고, 왼발은 왼쪽으로 최대한 넓게 벌려서 길게 뻗어 있다. 지물은 수평으로 하여, 왼손은 왼쪽에서 오른손 오른쪽에서 각각 위에서 아래로 향해 쥐고 있다. 아래에는 짧은 옷을 입고 있고, 허리에는 넓은 허리띠를 두르고 있다. 몸의 위쪽에는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쪽으로 넓은 띠를 두르고 있다.

巳像은 정면을 향해 엉덩이를 지면에 대고 오른발을 굽혀서 무릎보다 발이 몸쪽에 있고, 왼발은 넓게 뻗어 발바닥을 지면에 대고 있는데, 다리를 쭉 펴지 못하고 반쯤만 뻗어 있다. 지물을 수평으로 하여 왼손은 왼쪽에서 오른손은 오른쪽에서 모두 위에서 아래로 쥐고 있다. 짧은 하의를 입고 있고 허리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고,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쪽으로 넓은 띠를 두르고 있다. 왼쪽 엉덩이에는 꼬리가 나와 있는데 뱀이 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午像과 未像의 오른쪽 팔 부근에는 怪雲文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 같다.

북쪽면은 가운데에 子像, 오른쪽에 丑像, 왼쪽에는 亥像을 각각 배치하고 있다. 子像은 정면을 향해 양 발을 넓게 벌려서 쪼구리고 앉아 있는데, 오른발을 더 넓게 벌려서 몸의 중심이 왼발에 와 있게 표현되어 있다. 지물은 오른쪽을 높게 왼쪽을 낮게 하여 오른손은 몸의 오른쪽 바깥에서 왼쪽은 가슴 한 가운데에서 각각 바깥에서 안으로 잡고 있다. 아래의 옷은 짧은 것을 입고 있고, 몸의 위부분은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에 걸쳐서 넓은 띠를 두르고 있을 뿐이다. 머리는 거의 오른쪽을 향하여 있다.

丑像은 정면을 향해 발을 조금 넓게 벌려서 엉덩이가 땅에 닿을 정도로 하여 쪼구리고 앉아 있다. 지물은 왼像이 높게 오른쪽이 낮게 하여, 왼손은 몸바깥의 높은 곳을, 오른손은 가슴 가운데에서 각각 바깥에서 안으로 잡고 있다. 머리는 거의 왼쪽을 향해 있다. 옷은 아래쪽의 짧은 옷만 입고 있는 것 같다. 子像과 丑像의 높은쪽 지물끝은 서로 맞닿아 있다.

亥像은 지물을 잡고 앉아 있는 전체의 모습은 앞에서 설명한 子像과 거의 비슷하다. 지물의 높은 오른쪽 부분에 旗가 달려있는 것이 차이가 난다.

IV. 十二支像의 연구 개요

신라의 수도이었던 경주 일원에는 수많은 고분이 현재에도 남아 있다. 경주 시내에는 고신라 시대의 무덤인 積石木槨墳이 많이 남아 있다. 다소 시기가 늦은 시대의 무덤인 石室墳도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석실분은 대체로 통일 신라 시대의 것이다. 그 석실분 가운데 봉토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호석에 十二支像을 양각한 예가 있다.

十二支像에 대해서는 일인학자에 의해 日本의 隼人石과 관련지워 연구되기 시작하여 많은 자료가 모였다.⁶⁾ 十二支像을 불교적인 전조물과 관련지워 생각하였다. 十二支像이 분묘에 등장하는 것을 신라 中代의 전제 왕권과 관련시키는 견해가 나왔다.⁷⁾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皇福寺 앞에 圓形의 石列이 있는 것과 十二支像의 石材가 있는 것과 皇福寺石塔에서 발견된 金銅舍利函銘에 의하여⁸⁾ 石塔이 神文王을 위해 건립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神文王陵을 皇福寺 앞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五柳里陵을 十二支像의 편년과 관련시켜 傳眞德女王陵으로 보지 않는 점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분묘에 조각된 十二支像도 7세기까지 소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중국에서 출토된 獸首人身의 十二支像을 근거로 신라의 분묘에 조각된 十二支像도 755년(高元珪의 墓誌)을 소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⁹⁾ 이에 따르면 傳聖德王陵도 실제로는 聖德王陵이 아니라 보다 늦은 景德王陵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聖德王陵이라면 737년 전후에 만들

6) 內藤湖南, 1911, 〈隼人石と十二支神象とに就きて〉《歴史地理》17-2.

有光教一, 1936, 〈十二支生省を繞らた新羅の墳墓〉《青丘學叢》25.

齊藤忠, 1938, 〈新羅陵墓の外飾の石彫像考〉《古學雜誌》28-5.

7) 姜友邦, 1973, 〈新羅十二支像의 分析과 解釋——新羅十二支像의 Metamorphose——〉《佛敎美術》1.

8) 李弘植, 1951, 〈慶州狼山東麓三層石塔內發見品〉《韓國古文化論叢》

9) 西嶋定生, 1978, 〈中國・朝鮮・日本における十二支像の變遷について〉《古代東アジア史論集》1.

어겨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최고 예가 755년이라는 점과 비교할 때 모순이 된다는 것이다. 이 견해를 충실히 따르면 중국에서의 가장 오래된 예가 755년이므로 傳聖德王陵을 景德王陵(765)으로 보는 것조차 무리가 있게 된다. 중국 최고의 예와 한국 최고의 예 사이에 10년의 차이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신라에서 十二支像의 사용이 가능하려면 중국에서의 보다 많은 보급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신라의 十二支像 기술자가 중국에 가서 755년에 만들어진 高元珪의 墓에 새겨진 十二支像을 보아서 양쪽의 조각상 수법이 비슷해야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高元珪의 墓에서는 분묘의 외부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 墓誌에 새겨진 浮彫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적게 된다. 傳聖德王陵의 十二支像은 입체적인 조각상이라 高元珪 墓誌의 浮彫와 조각 표현 방법이 전혀 다른 점이 문제이다.¹⁰⁾

皇福寺의 十二支像·圓形石列을 神文王陵으로 비정한 것과 신라 十二支像의 상한을 755년으로 보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견해가 나왔다.¹¹⁾ 여기에서는 신라토기에 음각된 鳥頭人身의 그림 등을 근거로 755년의 十二支像 상한설을 반박하면서 皇福寺 앞 護石列은 神文王陵이었던 곳이 아니고 일종의 供養塔적인 유적이라고 주장하였다. 皇福寺址에 남아있는 十二支像은 陵旨塔이 도괴된 뒤에 가져다가 건축물의 석재로 전용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라에 있어서 분묘에 十二支像을 새기기 시작한 연대 설정에 중요한 것은 皇福寺 앞 圓形護石列이 神文王陵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十二支像의 자료를 통해 조사해 보자. 十二支像을 외부의 호석에 새긴 확실한 신라의 분묘는 聖德王陵·景德王陵·元聖王陵·憲德王陵·興德王陵·金庾信墓·方形墳·五柳里陵 등 모두 8기이다. 이 가운데 方形墳은 方形이고, 聖德王陵의 十二支像은 浮彫品이 아닌 독립된 모습으로 全身을 입체적으로 조각하고 있다. 나머지 6기의 예와 비교할 때 皇福寺의 十二支像은 분묘의 것일 가능성이 클 것 같다. 陵旨塔의 十二支像은 현재까지 10개가 발견되어¹²⁾ 皇福寺의 것과 합치면 그 수가 너무 많다. 皇福寺의 十二支像은 자체의 조각이 원형의 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陵旨塔의 十二支像 가운데 子像은 皇福寺의 것과 조각 수법이 꼭 같아서 오히려 皇福寺의 것을 옮겨온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결국 皇福寺 앞 圓形石列을 이루는 것을 神文王陵으로 추정할 견해¹³⁾가 타당할 것 같다.

이제 十二支像이 새겨져 있는 분묘의 상대적인 서열을 설정할 차례가 되었다. 傳興德王陵에서는 1962년이후 碑版이 발견되어 興德王陵임이 확실하게 되었다.¹⁴⁾ 여기서의 十二支像을 《三國史記》 등의

10) 姜友邦, 1987, 〈統一新羅 法幢의 復元的 考察——豐基出土 金銅龍頭의 出現을 契機로——〉《三佛金元龍教授退任紀念論叢》, 美術史學·史學·人類民俗學篇에 의하면 중국에서 실물 幢竿의 예는 없고, 신라의 당간은 경주에 많이 남아 있다. 중국과 한국의 실물 당간을 비교할 때, 충북 청주시 소재의 龍頭寺 鐵幢竿은 962년에 만들어진 것이며, 중국의 경우는 蘇州 保聖寺(1013년 창건) 幢竿이 그점으로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한다. 중국의 명문 자료에만 근거할 뿐 한국에서의 당간 출현은 1013년 이후라야 가능하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

11) 齊藤忠, 1986, 〈統一新羅의 陵墓의 考察——十二支像をもつ王陵を中心して——〉《朝鮮學報》119, 120合

12) 姜友邦, 1973, 〈앞의 논문〉, p. 52.

13) 姜友邦, 1973, 〈앞의 논문〉, pp. 28~31.

14) 閔泳珪, 1962, 〈新羅 興德王陵碑 斷石記〉《歷史學報》17, 18合

李基東, 1978, 〈新羅 太祖 星漢의 問題와 興德王陵碑의 發見〉《大丘史學》15, 16合

문헌 기록에 근거하여 興德王이 죽은 해인 836년 이후의 가까운 시기로 볼 수도 있다. 아니면 興德王陵碑의 건립 연대로 추정되는 872년 이후로 볼 수가 있다.¹⁵⁾ 興德王의 사후 均貞·梯隆의 왕위 계승 싸움 등을 고려할 때, 十二支像이 872년 이후 능비를 세울 때와 같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가장 늦은 시기로 보이는 五柳里陵을 제외할 경우, 十二支像 편년으로 보면 傳稱陵을 그대로 믿어도 연대상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金庾信墓의 十二支像이 문제이다. 여기의 十二支像을 김유신묘의 축조 당시에 만들었다고 볼 수가 없고, 十二支像이 무덤의 축조 뒤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덤의 주인공 문제와도 연결되므로 후고를 기다리기로 한다. 方形墳은 十二支像에 의해 元聖王陵의 것에 앞서는 시기로 본 견해에 따르면¹⁶⁾ 8세기 후반이 된다.

이상에서 간단히 통일 신라 왕릉 등의 호석에 조각된 十二支像의 편년을 선학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신라의 분묘에서 十二支像의 사용 시기도 알아 보자. 皇福寺 앞 十二支像을 神文王陵과 관련된 것으로 보면 7세기말이 그 상한이 된다. 신라의 분묘에 있어서 十二支像의 하한도 조사해 보자.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자료 가운데 五柳里陵과 興德王陵의 선후 관계가 문제이다. 五柳里陵의 十二支像이 興德王陵의 十二支像보다 늦은 시기로 본 견해에 따르면¹⁷⁾ 10세기까지도 분묘에서 十二支像을 새겼을 가능성도 있게 된다. 고려 왕릉에서도 호석에 十二支像을 계속 조각한 점으로 보면 늦은 시기의 분묘에까지도 十二支像을 계속 조각하였을 것 같다. 결국 신라 분묘의 호석에 있어서 十二支像을 조각한 것은 7세기부터 10세기의 신라 멸망 때까지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V. 몇가지 고찰

우리 나라의 十二支像은 陵墓·壁畫·石棺·石塔·石燈·石碑·銅鏡 등에 조각되어 있다. 이들 十二支像은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 몇가지 형식으로 나누어지고 있다.¹⁸⁾ 우선 복식에 따라 武服像과 文服像으로 구별된다. 다음으로 자세에 따라 坐像·立像·飛躍像¹⁹⁾으로 나누고 있다. 경주 일원에 소재한 陵墓의 호석에 조각된 十二支像은 모두가 立像이다. 그 가운데 憲德王陵·金庾信墓의 경우는 文服像이고, 聖德王陵·景德王陵·元聖王陵·興德王陵·方形墳·五柳里陵은 모두 武服像이다.

金海 進禮 출토의 석관은 경주 陵墓의 것이 立像인데 비해 飛躍像이다. 지금까지 飛躍像의 十二支像이 무덤과 관련된 유구에서는 알려진 예가 없다. 고려 시대의 顯宗宣陵·齊國公主高陵·七陵群第2陵에서 坐像의 예가 알려져 있으나²⁰⁾ 飛躍像의 예는 없다. 進禮의 石棺을 十二支像이 있는 점에 근거하여 고려 시대로 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 시대의 석관에 조각된 十二支像은 1144

15) 李基東, 1978, <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歷史學報》77, p. 25.

16) 姜友邦, 1973, <앞의 논문>, p. 44.

17) 齊藤忠, 1986, <앞의 논문>, p. 139.

18) 林永周, 1983, 《韓國紋樣史》, p. 205.

19) 日本에서는 蹈舞像이라 불리우고 있다. 孫景穗, 1962, <韓國十二支生肖의 研究>《梨大史苑》4에서는 飛躍像이라고 사용하고 있다.

20) 孫景穗, 1962, <앞의 논문>, p. 35.

년의 許載石棺과 같이²¹⁾ 대개 線刻으로 새겨져 있다. 進禮의 석관에 새겨진 十二支像은 浮彫이고, 석관의 몸체가 한 돌로 된 점이 6면의 판석으로 만든 고려 시대의 석관과 차이가 있어서 통일 신라의 것으로 추정된다.

進禮의 石棺에서와 같이 陵墓에 飛躍像이 조각된 다른 선례가 없어서 부득이 불교적인 예와 비교할 수밖에 없다. 飛躍像의 十二支像이 알려진 것으로는 華嚴寺 西五層石塔·化員洞 三層石塔·臨河洞 三層石塔·甘山寺 石材·校里 石燈·鑿藏寺 阿彌陀如來造像事跡碑 龜趺·關心寺 五層石塔 등의 예가 있다.²²⁾ 이 가운데에서 절대 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장사 아미타여래 조상사적비의 귀부²³⁾ (801). 개심사 5층석탑²⁴⁾ (1010)이 있다. 進禮의 十二支像은 개심사 5층석탑의 예보다²⁵⁾는 앞서는 형식이고, 무장사 귀부의 예보다는 뒤지는 형식이므로²⁶⁾ 9~10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석관이 金海 進禮城의 산기슭에서 출토되었고, 十二支像에 근거하여 그 시기가 9~10세기라면 이 때의 통일 신라의 지방 호족 가운데 進禮城을 중심으로 활약한 金仁匡과의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金仁匡의 등장 시기는 眞聖女王이나 孝恭王初이고, 그의 몰락 시기를 孝恭王 10년(906) 이전으로 추정한 견해가 있다.²⁷⁾ 거기에서는 金仁匡의 출신을 金海小京의 관리이거나 아니면 신라 말기에 와서 新金氏로 대두하고 있었던 구가야 왕족의 후예로 추정하고 나서, 그가 김해에서는 가장 먼저 등장한 호족 세력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견해에 따르면 金仁匡의 출신 신분은 6두품 정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

金仁匡과 관련되는 자료를 통해 그의 출신 신분을 조사해 보자. 우선 설명의 편의를 위해 관계 자료를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爰有 進禮城諸軍事金律熙 慕道情深 聞風志切 侯 於境外迎入城中 仍葺精廬 諮留法軌 猶如孤兒之 逢慈父 衆病之遇醫王……………先是知金海府進禮城諸軍事明義將軍金仁匡 鯉庭稟訓 龍闕馳誠 歸仰 禪門 助修寶所……………

위의 자료는 崔仁浼이 지어 景明王 8년(924)에 昌原 鳳林寺에²⁸⁾ 세운 新羅國師諡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銘에서 인용한 것이다. 眞鏡大師는 「大師諱審希 俗姓金氏 其先任那王族」에 근거하면 金海 金官加耶의 후예임을 알 수가 있다. 이제 인용된 자료에 근거하여 金仁匡의 출신에 대해 조사해 보자.

21) 孫景德, 1962, 〈앞의 논문〉, p. 35 및 圖(4)

22) 孫景德, 1962, 〈앞의 논문〉, pp. 34~35.

23) 葛城末治, 1935, 《朝鮮金石攷》, p. 229.

24) 葛城末治, 1935, 《앞의 책》, pp. 356~362.

25) 嶺南大學校 博物館, 1986, 《中原文化圈文化遺跡地帶調查報告》(聞慶·醴泉郡) 圖版 29.

26) 무장사 귀부의 十二古像은 姜友邦, 1973, 〈앞의 논문〉, p. 58에 사진(圖 49)이 소개되어 있다. 무장사 귀부의 十二支像을 甘山寺 石材의 十二支像과 거의 비슷한 시기로 본 견해가 있다(有光教一, 1942, 〈新타に見出土きた新羅の十二支彫像〉《考古學雜誌》32卷 11號, pp. 568~569). 지금까지 소개된 飛躍像에는 持物을 가진 예가 없다. 進禮 石棺의 예에서는 지물을 갖고 있다.

27) 崔柄憲, 1978, 〈新羅末 金海地方의 豪族勢力과 禪宗〉《韓國史論》4, p. 405.

28) 鳳林寺는 昌原市 吐月洞의 鳳林山麓에 있고, 이곳은 進禮山城의 북서쪽 하단부에 해당된다고 한다(釜山大學校 博物館, 1984, 《앞의 책》, p. 128).

그는 「進禮城諸軍事」 또는 「知金海府進禮城諸軍事明義將軍」이라는 관직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다. 직명으로 보면 金仁匡은 進禮城을 중심으로 활약한 신라말의 城主·將軍이라고 불리웠던 지방 호족의 한 사람이었다. 「鯉庭稟訓 龍闕馳誠 歸仰禪門 助修寶所……」는 그의 출신·정치적 입장·禪宗과의 관계 등을 잘알 수 있는 구절이다. 「鯉庭稟訓 龍闕馳誠」은 金仁匡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大闕의 신라왕에 정성을 쏟았으며,²⁹⁾ 「歸仰禪門 助修寶所……」는 進禮에서 禪門을 양모하여 사찰짓는 일을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金仁匡이 그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신라 왕실과의 관계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점이다. 기왕의 견해와 같이³⁰⁾ 金仁匡이 金海 小京의 관리 출신이거나 가야 왕족의 후예라면 그의 아버지가 신라 왕실과의 관계에 힘쓰도록 자식에게 가르침을 내린 이유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900년 전후의 신라 국력은 쇠퇴할만큼 쇠퇴해 지방 세력을 통제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기 때문이다. 金仁匡의 아버지가 신라 왕족 출신이었는데 정치적 이유 등으로 김해 進禮에 낙향하여 살면서 경주에서 자라지 않은 자식인 金仁匡에게 신라 왕실과의 관계를 강조하였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다. 그 증거로 進禮에서 나온 十二支像이 조각된 石棺을 들 수가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조사된 경주의 예에서 보면 十二支像을 무덤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은 왕족이 아니면 불가능하였다. 그러면 이 석관에 묻힌 주인공을 金仁匡이나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고, 석관의 연대도 900년 전후로 한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VI. 맺 음 말

지금까지 金海郡 進禮面 松亭里 山 70번지에서 출토된 석관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 석관의 하단 부에는 각 면당 3상씩의 十二支像이 양각되어 있다. 이 十二支像의 형상을 통일 신라의 왕릉·석등·석탑 등의 十二支像과 비교하여 석관이 통일 신라의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통일 신라신라에서는 十二支像이 새겨진 石棺의 예가 없다. 분묘 유적에서의 十二支像은 대개가 立像이며, 고려 시대에도 立像이 주류를 이루나 坐像의 예도 알려져 있다. 이 석관의 十二支像은 立像이나 坐像이 아닌 飛躍像인 점이 특이하다. 석관의 연대는 十二支像의 편년과 眞鏡大師碑에 근거하여 900년 전후로 추정하였다. 이 시기에 進禮城에서 활약한 지방 호족 金仁匡 등과 본 석관이 관련이 있는 듯하다. 金仁匡의 출신 신분도 進禮에서 출토된 석관의 十二支像에 근거하면 신라의 왕족일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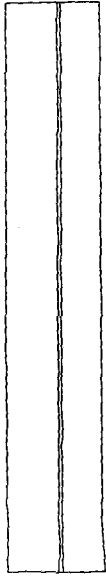
29) 詔庭이란 《大漢和辭典》12, p. 750에 의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잇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崔柄憲, 1978, 〈앞의 논문〉, p. 404에는 鯉庭을 孔子가 그의 아들인 鯉로 가는 것을 불러 세우고 詩와 禮를 배워야 한다고 훈제한 《論語》의 故事에 근거하여 金仁匡이 상당히 교양이 높은 家門에서 성장하였을 것으로만 추측하고 있다.

30) 崔柄憲, 1978, 〈앞의 논문〉, p. 405.

I

B'



B面

巳

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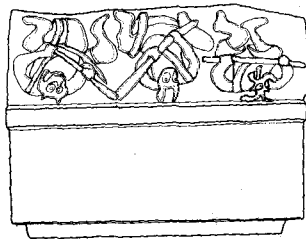
南

未

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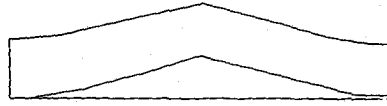
卯

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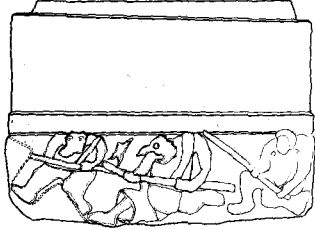


A面

東



西



A'面

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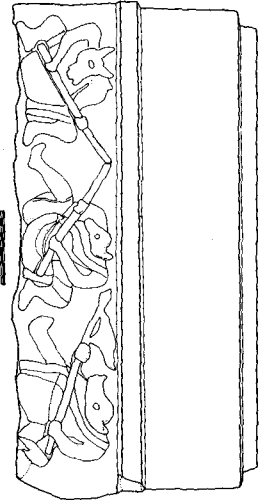
酉

申

丑

子

0 5 10cm



B'面

北

〈석관의 측면도〉

〈석판의 평면도〉

